



함은혜  
한정식숙

## 나의 사랑하는자야,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10~13)”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야, 내 어여쁜 아이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요새 힘들었지? 그렇지만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금 날씨가 얼마나 예쁜지 아니? 꽃도 피었고, 새도 지저귀고, 나무열매도 익었어. 향긋한 과일 향까지 세상에 가득하거든. 그냥 있거나 너무 아까워, 얼른 같이 나가보자.”

슬금슬금 나갔는데, 걷다 보니 정말로 맛있게 익은 곡식과 과일들이 즐비했고, 그냥 두고 올 수 없어 몇 개 들고 와 주님과 같이 맛있게 나누는 거다.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게 ‘일’이 될 수는 있

지만, 적어도 “설마 지금 쉬는 거니? 얼른 나가서 낫질해!” 는 아닌 거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을 열심히 지으셨고, 즐거운 산책길에 나를 불러주셔서 같이 걷게 하시는 것 같았다.

이토록 인격적인 분이 굳이 왜 나를 이런 험난한 세상에, 그것도 자유의지와 함께 보내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내 시선은 보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자꾸만 돌아가고, 자유의지까지 주신 감에 답석한 입 베어 물고 싶어지니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고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런 것들에 휩싸여 ‘죽도록 고생하며 불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키우는 고양이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데, 하물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게 오늘의 삶을 베푸신 데는 최소한, 사람마다 생각이나 성격/성품이 모두 다른 만큼,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걸어보지 않았냐는 제안을 하시려는 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다짐해본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어제는 했지만 오늘은 못 하겠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나무로, 하늘로, 바람으로, 사람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섬세함을 따라 한 발씩만 가보자, 주님 집에 도착할 때까지.**

# 배화교회

주보 제 2019-10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19.3.10

## 사순절 제 1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 인도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 회 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닫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 다함께: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감사와 찬양드리며 / 주 앞에 엎드려

### 대표기도 문지혜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오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지미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마태복음 4장 17-20절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 설교 김영석 목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찬양과 기도 찬송가 324장 < 예수 나를 오라하네 >

## 축도\* 김영석 목사

## 지난주 통계

인원	87명
헌금	십 일 조   권태성 김수현 김용석 유재연 김은철 성임숙 김재홍 김선민 김택현 서민욱 이아름 허경식 함은혜 감사헌금   김수현 서광희 한호철 조진영 허경식 함은혜 주일헌금   강영건 김영석 홍병진 김택운 문지혜 박세연 박재성 백수산나 서하랑 송민천 김미소 송윤경 윤영미 이병홍 최명성 최영광 최인성 최정용 추세영 허경식 함은혜 무명 목적헌금   허경식 함은혜(건축헌금, 장학헌금) 성임숙(일천번제)

##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 사순절

사순절 캘린더를 참고해주세요.

### 캠퍼스 사역

"사랑하는 배회에게"라는 주제로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화여자학생들에게 편지와 선물을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선물의 종류는 카드지갑, 악세서리, 화장품, 문구용품 등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문의: 김재홍 집사 010-8981-0720)

### 손으로묵상

2월 완필자는 (호칭생략) 강영건, 김선민, 김영석, 김예현, 김용석, 김은철, 김재홍, 노준영, 문지혜, 민초원, 박세연, 박진성, 백수산나, 성임숙, 송민천, 이은미, 조진영, 최명성, 최영광, 추세영, 함은혜, 허경식, 홍병진, 홍성희 성도입니다.

### 기획위원회

점심식사 후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 새가족환영

임가은 자매님이 배화교회의 새가족이 되셨습니다.

### 배식 및 정리

오늘은 쓱쓱속, 다음 주는 일상속입니다.

### • 대표기도

3.17	박재성 집사
3.24	서민욱 집사
3.31	송윤경 집사
4.7	서광희 권사

\* 수요기도회 : 오전 10시 기도실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기도실

\* 홈페이지: [www.baewhach.kr](http://www.baewhach.kr)  
유튜브, 인스타그램: 배화교회